

(6면)

## 47경서일보

www.gsdaily.co.kr



광복 80주년 국민임명식 〈7면〉

2013년 5월 2<u>3일 창간</u>

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음력 7월3일

주간신문 복간 624호

## 윤 前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 구속



▲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상 초유 상황 생성 이미지. (사진=AI인용)

## 윤석열, 특검출석 불응 '초강력 버티기'

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인해 구속됐다.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 가 일어났다.

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, 특정범 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12일 오후 늦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들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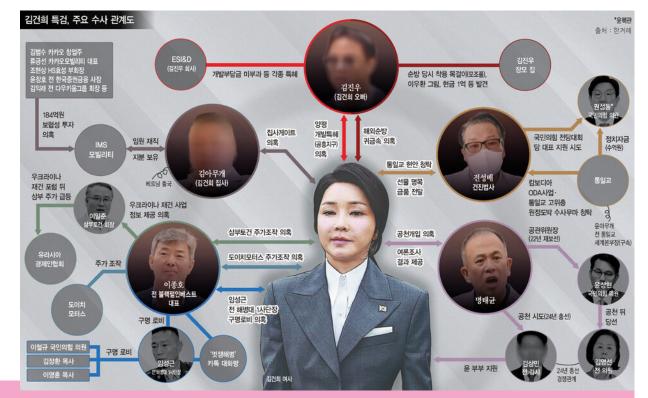
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발부이유로 제시됐으나 반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(이하 반클리크) 목걸이와 관련된 김건희 씨의 연이은 말바꾸기가 결정적인 증거인멸 우려로 적용됐다.

반클리프 목걸이는 윤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로 당시에도 고가 브랜드로 지적이 많았다.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지인에게 잠시 빌린 것, 홍콩에서 산 모조품, 어머니 환갑 선물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꿨다.

하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"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님에게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다"는 자수서와 실물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김건 희 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.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인의 신병 확보가 아닌 '국정농단'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는 분석이 나온다.

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

위반 혐의뿐 아니라 정치 브로커 공천 개입 의혹과 통일 교 청탁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. 특검팀은 이미 570쪽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. ▶2면에 계속 정치팀



## 김건희 끝없는 혐의…영향력 안 미친 곳이 없다?!

특검법 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는 현재 총 1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..

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. 2009년~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혐의로,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(전주)로 지목됐다.

급 세당자(전구)도 시독했다. 이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다. 2022 년 재·보궐선거 및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다.

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다. 2022 년 4~8월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하며 교단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다.

또한 삼부토건 관련 주가조작에

연루됐다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공흥지구개발 특혜 의혹 혐의다.

이 외에도 김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코바나콘텐츠가 부당한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인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혐의, 대학교 강사 및 겸임교원 지원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허위 경력 및 학력 기재 의혹 혐의. 명품 가방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는 명품백 수수 의혹 혐의,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했다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특혜 의혹 혐의 등 상당수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.

결국 도이치모터스 의혹 외에도 국정농단, 불법 공천 개입, 뇌물 수수 의혹 등 김건희씨는 "대통령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"고 한 약속 뒤로 대통령 'VI'을 넘어 'VO'으로 불리면서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했다.

사결정의 권덕들 행사였다. 특검팀의 고강도 조사로 그동안 공공연하면서도 감춰져 왔던 김씨의 광범위한 범죄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. 정치팀